

광주 U대회 D-113 운영비·숙박시설 등 성공개최 숙제 많다

운영비 111억 시·조직위 마찰
선수 이동 문제도 해결 안 돼
개·폐회식때 주차대란 올수도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광주 U대회·7월3~14일) 개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운영비 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성공 개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운영비 지원 규모 등을 놓고 제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신경전을 펼치면서 관련 예산 미확보시 부실대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 U대회 조직위는 광주시에 운영비 111억원을 조속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직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간인 오는 6월 초에는 해당 예산이 지원되어야 부실 운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비는 선수단 서비스 제공 및 홍보·문화 행사 등의 비용이다.

반면 광주시는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종 운영비로 392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부 분석 결과 대회를 운영하는 데 충분한 예산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시설도 아직은 미완성이다. 국제양궁장은 보상문제로 공사가 지연(공정률 63%)되는가하면 신증축 경기장(10개소) 준공을 앞두고도 관리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시험 가동 및 시설관리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

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협조까지 미흡하다. 일부 숙박업소 업체들이 U대회 기간 과도한 숙박비를 요구하고, 단기 사용자의 예약을 거부하면서 숙박시설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시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3601실을 확보해야지만, 현재까지 2420실(67%)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광주와 전남·북 등 경기 개최 지역 내 숙박시설이 1300개소 4만2580실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이 대목 장사를 노리고 사전 예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또 대회기간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외국 선수단의 인천공항-광주간 이동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해외 참가자의 80%를 인천-광주간 KTX로 수송하겠다고 하며 현재 1일 2회인 운행횟수를 대회기간 6회로 증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항철도 노선이 포화상태인 탓에 임시편성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국제행사의 필수 시설인 메인미디어센터(MMC) 구축도 예산난 등으로 식당 시설 미설치, 식수공급 불안정, 할랄식(무슬림식) 제공 업체 미확보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폐회식 및 주요 경기장의 일반 주차장도 계획보다 2333면을 미확보한 탓에 대회 기간 내내 경기장 주변이 주차대란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광주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U대회 D-100일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기 졸업식 및 3기 입학식'에서 3기 신입원우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기 졸업·3기 입학식 열려

장하성·표창원·이영돈·배병우 등
초호화 강사진 매주 화요일 강의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기 졸업식과 3기 입학식이 지난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문병재 1기 원우회장, 윤홍식 2기 원우회장 등 200여명

광주·전남 오피니언 리더들 '평생 만남'

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헌신적인 활동으로 원우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공로패 전달과 신입회원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윤홍식 2기 원우회장은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통해 국내 최정상급 강사들의 강연을 접하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명사들과 다양한 인연을 맺게돼 유익했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3기 강연과 신입회원들의 활동에 기대와 응원을 보낸다"고 졸업소감을 전했다.

김여송 사장은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고품격 교류의 장인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3기 회원을 맞았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며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호남예술제에 버금가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광주일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오는 17일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를 개강 강사로 초청해 '한국 자본주의, 정의로운 경제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3기 강연을 시작한다. 매주 화요일 저녁 상무지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리는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영돈 jtbc PD, 배병우 사진작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조합장 동시선거 광주·전남 196명 선출

투표율 광주 86.9·전남 80.5%

11일 치러진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가 평균 80%의 높은 투표율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광주·전남에서 196명의 조합장을 선출한 이번 선거에서 광주는 전체 투표인 수 2만6178명 가운데 2만2755명이 투표에 참여해 86.9%, 전남에서는 총 유권자 33만8907명 가운데 27만2746명이 투표해 80.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주 1곳, 전남 35곳 무투표 당선지 확정된 곳을 제외하고 160곳에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진행한 결과 광주농협은 한진섭

현 조합장, 서광주농협도 문병우 현 조합장이 당선됐다. 접전이 예상됐던 남광주농협은 이영종 전 상임이사, 북광주농협은 구희호 현 조합장이 각각 당선됐다. 비아농협은 현 조합장인 박홍식 후보가 선출됐다.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거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을 첫 도입돼 치러진 이번 조합장 선거는 개별적으로 치러졌던 조합장 선거방식보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선거방식에도 불구하고

농협 조합장 당선자	
광주농협	한진섭
서광주농협	문병우
남광주농협	이영종
비아농협	박홍식
북광주농협	구희호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불만이 되풀이됐고 '현역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 행위가 제한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100건을 포함해 돈·

현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 위반사항 총 746건을 적발해, 147건을 고발하고 74건을 수사의뢰·이첩, 525건을 경고조치했다.

조합장 적발건수는 0.562건으로 최근 4년간 개별 조합장 선거 때 위반수준과 같았으며, 선거 후 추가신고가 접수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체 위반 중 39%인 291건, 고발 중 66%인 97건이 기부 행위 등 금품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과거 개별 조합장 선거 당시의 관행이 여전히 유권자를 금품 매수하려는 노골적인 불법 행위가 적지 않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선거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돈선거'·'깜깜이선거'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교시간 8시30분 적용
수능 대비 高3엔 불합리” ▶6면
금호아시아나 재건 순조 ▶14면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10년 후 하루 300억
5년 후 하루 200억
내년이면 하루 100억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은 **3월 28일**까지입니다. 늦어도 국회 연금특위 활동 연장 시한인 **5월 2일**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당장 내년에만 연 1조 5천억이 더 들어갑니다.
- 지금 개혁 안하면
현 정부 15조, 다음 정부 33조, 그다음 정부 53조 - 내년이면 **하루 100억**, 5년 후 **하루 200억**, 10년 후 **하루 300억**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